

교체할 타이어 없어... 어이없는 여객기 결항

무안발 상해행 동방항공 나사못에 바람 새 운항 취소 승객들 하루 지연 큰 불편 “국제공항 무색” 불만도

승객 120여명을 태우고 지난 31일 낮 무안공항을 출발, 상해 푸둥공항으로 가려던 동방항공 여객기가 타이어 결항으로 5시간가량 출발이 지연되다 결국 결항했다. 항공사 측이 이륙 전 점검 과정에서 여객기 타이어에 나사못이 박혀 바람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정비 후 출발하려 했으나 바퀴 끼울 타이어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서 운항 취소가 결정된 것이다.

동방항공이 사소한 결함조차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항 결정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자, 여객불편을 줄이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항공사 자체적으로는 정비 기반을 구축하고 국토부도 운항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항공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0분 무안공항에서 상해 푸둥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던 동방항공 여객기(MU 5058편) 타이어에서 결함이 발견돼 출발이 지연되다가 오후 5시께 운항 취소가 결정됐다. 승객 129명은 5시간여 동안 무안공항에서 출발을 기다리다가 결국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여객기 운항 취소를 불러온 것은 여객기 앞바퀴에 박힌 조그만 나사못 때문이었다. 이날 푸둥공항에서 오전 11시 20분 무안공항에 도착해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중국으로 갈 예정이었으나 이륙 전 점검과



지난 31일 낮 12시 10분께 승객 129명을 태우고 무안공항을 출발, 상해 푸둥공항으로 떠나려던 동방항공 여객기가 앞바퀴에 나사못이 박혀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운항이 취소됐다. 동방항공은 펑크난 타이어를 대체할 타이어를 제때 구하지 못해 결국 결항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독자 제공>

정에서 나사못이 박힌 타이어의 바람이 빠진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 관계자는 “앞바퀴 2개 중 한 곳에 0.56cm 나사못이 박혀 바람이 빠지면서 여객기 운항이 지연되다가 결국 운항 취소됐다”면서 “결함 발생한 타이어의 경우 안전과 민감한 사안이라 임의로 보수하고 출발해선 안 되고 반드시 새 타이어로 교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방항공은 대체 항공편을 확보하지 못하고 부산(김해공항)에서 타이어를 공급받아 정비를 마치고 이륙한다고 승객들에게 밝혔으나 부산에는 동일한 타이어가 없는

것으로 뒤늦게 중국 본사 측으로 통보받았다. 인천공항에서 육로를 통해 타이어를 가져와 정비한 뒤 이륙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지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날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객기에 승객들을 태우기로 결정했다.

1~2시간 안으로 정비를 마치고 이륙할 비행기가 결항이 된 배경에는 동방항공 측의 허술한 정비 시스템이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나 등 국적 항공사가 광주공항이나 무안공항에 정비시설과 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달리, 동방항공의 경우 여객기에 정비 인력 1~2명을 태우고 다니면서 부품 조달은 부산(김해공항)이나 인천공

항에 있는 자체 정비시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한 탑승객은 “나사못 하나가 바퀴에 박혀 비행기 타이어가 펑크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대체할 타이어를 확보하지 못해 여객기가 결항된 것은 여태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무안공항도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항공사 측이 교체할 타이어도 공항에 준비하지도 않고 너무 안일하게 여객기를 운항하는 것 아니냐”면서 “항공사가 허술하게 운항에 임한다면 공항과 항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가 운항 요건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산구청 비서실장 압수수색 직후 사표

구청은 즉각 수리...공사 비리 의혹 속 배경 주목

광주시 광산구청 비서실장이 공사비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돌연 사의를 표시했다. 광산구청은 지난 31일 곧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서실장의 사표가 공교롭게도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사표를 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광주시 광산구청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산구청 비서실장 A씨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 A씨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공사 관련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비서실과 건설과 등 광산구청 압수수색에 착수한 시점을 전후해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망기구를 생산·시공하는 지역 B업체 대표를 구속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뇌물 장부’를 확보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광산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업체 등 9곳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가 지난해 B업체에 정사 내 조 명 공사를 맡긴 점, 비서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사표를 제출한 점 등에 미뤄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를 놓고 공무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

다. 광산구 한 관계자는 “비서실장의 경우 자신의 정치적 목표도 있고 개인 일정으로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도 비리 의혹을 받은 일부 직원들을 겨냥해 진행한 것이지 구청 전체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한빛원전 1호기 계획예방정비...6개 중 3개 ‘정비중’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원전 1호기가 지난 31일 오전 10시 발전을 중지하고 제23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비 기간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요 기기와 계통을 점검하고 저압터빈 분해정비, 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 교체 등 중요 기기 정밀 정비를 시행한다. 정비 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

을 받아 12월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한빛원전 전체 6개 발전소(1~6호기) 가운데 3개 발전소가 정비 중이다. 한빛 3호기는 12월 발전을 중지하고 제16차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했다. 한빛 2호기는 5월 제22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지만 격납건물 내부 철관에서 부식과 구멍이 발견되면서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울산 관광버스 사고, 과속 중 무리한 끼어들기 탓

승객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사고와 관련, 경찰은 과속운행 중 무리하게 끼어들기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사고 버스업체 대표이사, 사고 지점 도로 확장공사를 하던 현장소장 등을 추가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구속된 운전자 이모(48)씨를 비롯해 모두 4명을 입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사고 버스기사가 조사 초기에 사고 원인으로 주장했던 타이어 펑크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울주경찰에 따르면 도로 노면이나 최초 충격 지점에서 확인된 타이어 흔적을 볼 때, 버스가 콘크리트 방호벽을 1차로 들이받은 뒤 우측 전륜 타이어가 터졌다. 즉 타이어가 먼저 터져서 차가 급격히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버스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타이어가 터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승객 구호 노력 없이 제일 먼저 탈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중대형·외제차 노려 수천만원 차량털이한 20대 탈미



○...명절에 직원들에게 줄 상여금이 든 광주 평동산단 기압대 표자의 차량을 비롯해 주차된 차량을 닦는 대로 털어 온 20대 남성이 철창 신세.

대서모두 2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정씨는 차량 배기량이 2000cc 이상의 중대형 승용차나 외제차를 노렸고, 운전자 실수로 문을 잠그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추석을 보내려고 이 차 저 차 손을 댔는데, 외제차에 들어 있던 문치돈이 근로자에게 돌아갈 상여금인 줄은 몰랐다. 알았다면 손도 대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

○...지난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정모(26)씨는 지난달 13일 새벽 2시 20분께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박모(46)씨의 벤츠에 있던 현금 200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등을 돌며 차량 14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인양 방식 바꾼다

선미 들어올려 리프팅빔 한꺼번에 설치하기로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위해 선미에 리프팅빔(받침대)을 설치하는 작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당초 선미 아래와 주변에 쌓인 토사를 굴착하고 빔을 하나씩 삽입하던 것에서 선미를 살짝 들어 올려 그 밑으로 빔 여러 개를 한 번에 설치하는 ‘선미들기’ 방식으로 변경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기존의 굴착 방식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상하이셀비지(인양업체), 국내 기술자문단, TMC(건설탐입업체) 등과 세 차례 기술검토 회의를 한 결과 선미들기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인양은 선수에 18개, 선미에 8개의 리프팅빔을 각각 삽입한 뒤 와이어를 연결해 크레인에 걸고, 들어 올린 선체를 플로팅독에 실어 목표항 철재부두에 거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하이셀비지는 7월 말 선수 작업을 끝내고 지난달 9일부터 선미 공정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질 상황이 좋지 않아 리프팅빔 삽입을 위한 토사 제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리프팅빔 8개 중 2개만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선미들기는 미리 삽입한 리프팅빔 5개(이미 설치한 2개 포함)와 선체의 뼈대에 부착한 들고리(리그), 선체 둘레에 각각 와이어를 걸고 스트랜드 잭업장치를 탑재한 바지선이 선미를 약 1.5m(0.5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해수부와 상하이셀비지는 3개 빔을 굴착 방식으로 추가 설치하고 장비 개조, 유실방지망 설치 등의 작업을 거쳐 11월 말이나 12월 초 기상이 양호한 소조기에 선미들기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불법 임플란트 수술한 의료기기 납품업자 무자격자 수술 보조업무 시킨 치과의사들

순천경찰, 무더기 적발

자격 없이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수술 보조업무를 시킨 치과 의료용 재료 납품업자와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순천경찰은 지난 31일 치과의사자격 없이 사무실에 각종 치과 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으로 불법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치과 의료용 재료 납품업자 A(51)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수술 도구를 대여하거나 수술 보조행위를 요구한 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로 B(60)씨 등 치과의사 7명을, 의료품 취급자 격이 없는 A씨 등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하는 마취제(리도카인)를 판매한 혐

의(약사법 위반)로 제약회사 직원 C(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기공소 직원으로 일한 경협이 있는 A씨 등은 순천 시내 사무실에 각종 치과용 의료기기를 갖추고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치아 1개당 60만~70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수차례 임플란트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또 B씨 등 거대치 치과의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자격 없이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천, 여수, 고흥 등 전남 동부권 일대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 B씨 등은 의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 A씨 등에게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되는 수술 도구 소독 및 대여를 요구하고, 각종 수술 보조행위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지리산 관광특구 내, 대형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 3000만원만 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 매매 - 협의

토지, 6000평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매매 - 20억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오천경매

- ▶비법 배우실 분! 특수수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대표 최선규
H. 010-3605-5000